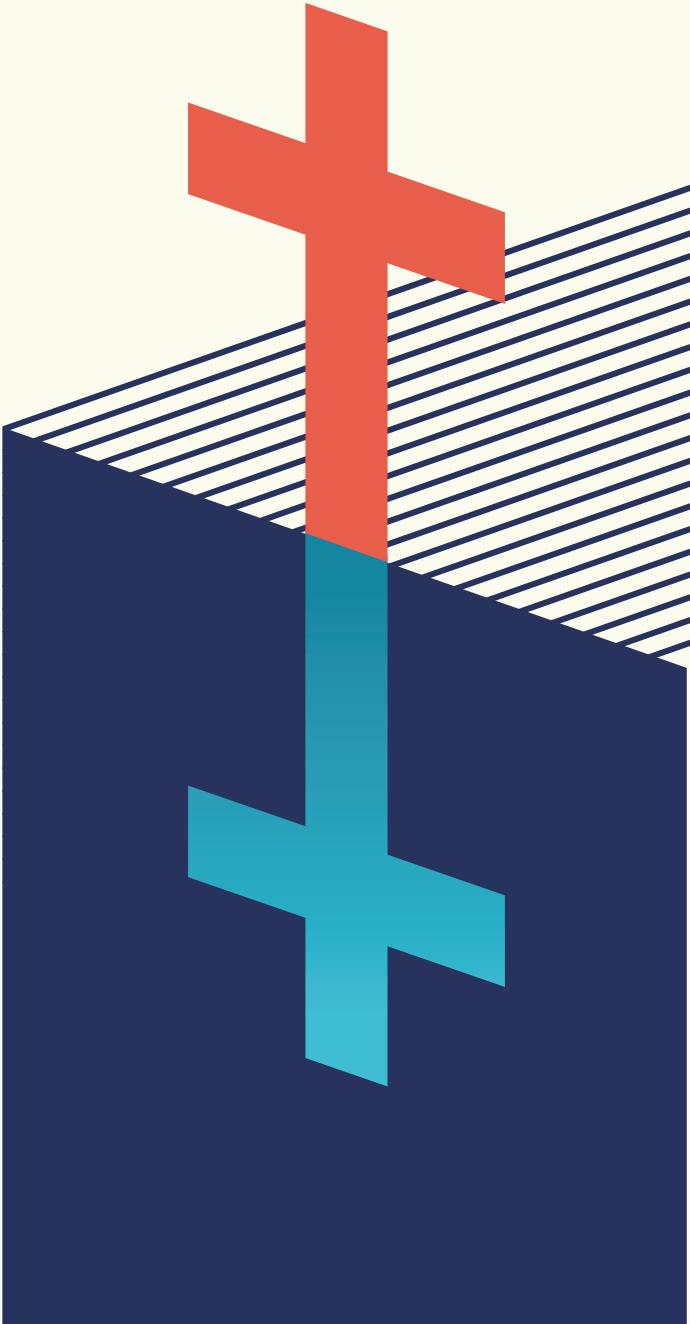


2024년
2월 4일

로마서 강해
갈릴리 공과



1.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2.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 본 경험을 나눠봅시다.

| 찬양 - 빈들에 마른 풀 같이(찬 191장)

1. 빈 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2.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3.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4.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에 흠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후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명 주옵소서

| 대표기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롬 8:5-11)

1. 인간: 생각하는 존재

롬 8:5-6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인지과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6만 건 이상의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1.44초마다 하나의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정의 내립니다. 19세기 프랑스 조각가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만듭니다. 건장한 남자가 '지옥의 문' 위에 앉아, 현세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들을 관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자는 고통스러운 멸망의 결과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생각은 존재를 규정합니다. 생각에 무엇이 있는가가 바로 <현재의 나>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과 생애는 그 사람의 생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 6: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생각에서 생명과 사망이 나뉩니다. 한순간의 생각에서 생명과 사망이 나뉘어지고, 한순간의 생각에서 하늘 같은 삶과 지승 같은 삶이 나뉘어집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요 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길 소원합니다.

점검 질문

1. 사람은 생각 상태에 따라 어떻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나요?

2. 육신을 따르는 자

롬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안에 계신 존재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실재하신다는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존재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고전 12:3).

롬 8:7-8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입니다. (롬 8:6)

육에 끌려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죽음의 영이 주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육에 끌려 다니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은 바꿔 말하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무엇을 하든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둘째, 육신에 끌려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롬 8:7)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여겼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자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때 예수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 16: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죽으시면 안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죠! 사실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을 사랑해도 하늘 섭리를 위해서는 주님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에 달리면 안된다는 이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내가 판단하는 많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정 중심에서 나온 판단인가? 혹시 사사로운 내 마음을 개입시켜 내 경험과 내 판단에서 나온 사람의 일은 아닌 것인가?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언어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언어로 사람을 바꾸지 말고 기도로 사람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 말씀, 사랑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이 됩니다.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풀어가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셋째, 육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롬 8: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한 신실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 옵니다.

눅 18:18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눅 18: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집 뒤켠 나무를 잘라 하나는 지팡이로 만들고 하나는 의족으로 이 관리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타자에 대한 연민! 죄인들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부족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심정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도 하나님의 심정이 빠지면 그는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없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심정 중심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점검 질문

1.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르는 중요한 구분점은 무엇인가요?
2. 육신을 따르는 자의 세 가지 모습은 무엇인가요?

3. 성령으로 사는 사람

롬 8:9-11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아 풍성한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민 11:16-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칠십 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매일 만나를 먹다가 지겨우니까 모세를 향해 불평합니다. 모세가 너무 기막혔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왜 이들을 나에게 맡기셔서 이들의 불평 원망 다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70명의 장로를 뽑아 짐을 나눠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두 명의 장로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두 명에게 똑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기가 막혀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충성하지 않은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때 모세의 응답이 기막힙니다.

민 11:29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그 두 명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200만 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두가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난 자 못난 자! 내 편 네 편! 똑똑한 자 미련한 자!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두가 선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주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편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온 누구든지 성령 받고! 예언을 하고 시대적 직임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내 편견이지 하나님 생각은 다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가 존귀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 서로 존귀하게 여깁시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선지자적 존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교회 구석 구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인생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평강으로 가득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인생은 세상과는 차이나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인생은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점검 질문

1.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적용 질문

1.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것(염려, 근심 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았던 삶의 경험이 있다면 같이 나누어 봅시다.

| 공동체 기도

1. 각 부서 수련회에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2.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기도는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며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3. 1-2월 말씀을 읽고 암송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He Abides

Herbert Buffum, Doc McKinley Shanks



1. 내가 매일기쁘게 - 순례 의길행 함은 - 주의 팔이나를안 - 보함이 요
2. 전에 죄에빠져서 - 평안 함이없 을때 - 예수 십자가의공 - 로힘입 어
3. 나와 동행하시고 - 모든 염려아 시니 - 나는 숲의새와같 - 이기쁘 다
4. 세상 모든욕망과 - 나의 모든정 욕은 - 십자 가에이미못 - 을박았 네



내가 주의큰복을 - 받는 참된비 결은
그발 아래엎드려 - 참된 평화얻 음은 - 주의 영이함께함 이 라
내가 기쁜맘으로 - 주의 뜻을행 함은
어둔 밤이지나고 - 무거 운짐벗 으니



성령 이 계시 네 할렐 루야함께하 시 네



좁은 길을걸으며 - 밤낮 기뻐하는것 - 주의 영이함께함 이 라

